

〈특집 1: 물품과 지역성: 동유라시아의 진상과 증여〉

近世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와 ‘全鰓’의 길*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특산물의 교역과 진상-

임 경 준 **

〈목차〉

- I. 문제의 소재
- II. 15세기 이전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와 제주도
- III. 明初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과 제주도 사회경제
- IV. 제주도에서의 貢納制 착근과 ‘全鰓’의 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元明交替 이후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제주도 사회경제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특히 제주도의 특산품인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 이 이동한 길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15세기 이전 제주도의 사회경제는 海産物의 채취와 교역이 기층에 자리 하면서 大元의 지배 이후 말 목장 경영이 활발 해짐에 따라 말의 進上和 교역이 그 위에 표층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다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더하여 열악한 토지 생산성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인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15세기 이전 제주도는 ‘交易品’과 ‘進上品’이라는 두 갈래의 길 위를 교차하는 ‘물품’들에 의해 사회경제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HK연구교수

기본구조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 해역 속에서 제주도의 위치가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는 元·明 교체에 의한 朝貢-海禁 체제의 구축이다. 종래 국가 간의 公貿易 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私貿易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동북아시아 해역은 새롭게 성립된 明朝 정권의 강고한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일체의 대외교역이 국가 간의 公貿易으로 일원화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영유권을 차지한 朝鮮王朝는 이 지역에 貢納制에 기반을 둔 수취체제를 시행하면서 제주도 지배를 관철해 나간다. 그 결과 이제까지 제주도산 전복이 이동하던 주요한 '길'이었던 '交易品の 길'과 '進上品의 길' 중에서 전자가 역내 교역으로 축소되며 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해상교역의 결절점으로서 제주도가 갖고 있던 지위의 상실을 '전복의 길'의 변화를 통해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 주제어

元明交替,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全甌, 제주도, 조선왕조

I. 문제의 소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는 서남쪽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火山島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야를 동북아시아 해역세계로 넓혀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황해와 동해가 남쪽으로 흘러 들다가 동중국해로 합류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한 제주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한반도, 중국대륙, 타이완, 류큐열도, 일본열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해역의 연안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해 왔다. 동북아시아 해역의 지역간

교역·상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역사·문화를 형성해 왔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 각종 海難 사고도 빈발하여 선박의 침몰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멀리 異國으로 漂流·漂着하는 사례가 다양한 문헌기록에 전하고 있다.¹⁾

종래의 연구는 전근대 동북아시아 속에서 제주도가 갖는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1)제주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海民이 전개한 해상활동의 실태,²⁾ (2)우발적으로 발생하는 漂流·漂着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검증해 왔다.³⁾ 다른 한편으로 (3)제주도의 독자적 王權이었던 耽羅가 종식된 이후 高麗·大元·朝鮮으로 이어지는 지배 세력의 변동에 초점을 맞춰 그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작업 또한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지탱해 왔다.⁴⁾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사료집의 影印·譯註 또한 활발하고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듯이 한국학계만이 아니라 일본학계에서도 對外關係史나 朝鮮史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
- 1) 동북아시아 해역세계의 표류 표착을 전하는 주요한 사료는 다양하다. 朝鮮에서는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사료를 비롯하여 『濟州啓錄』이나 『漂人領來臚錄』과 臚錄을 통하여 풍부한 사례를 검출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해역세계의 표류와 관련된 연구성과와 사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劉序楓, 「표류, 표류기, 해난, 桃木至朗(역음)/최연식(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참조.
 - 2) 제주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海民이 전개한 해상활동의 실태에 관해서는 網野善彦과 高橋公明가 선구적으로 거론하였고 이후 한일 양국에서 후속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網野善彦, 「中世から見た古代の海民」, 『日本の古代8 海人の傳統』, 中央公論社, 1987;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海と列島文化4: 東シナ海と西海文化』, 小學館, 1992 등 참조.
 - 3) 六反田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 『濟州啓錄』を中心に」, 『年報朝鮮學』 7, 1999;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08;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경계』 69, 2008 등 참조.
 - 4)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青丘學術論叢』 19, 2001의 참고문헌을 참조.

관련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견실한 연구 성과 위에 축조된 기왕의 '제주도 像'에 대하여 구태여 벽돌을 하나 더 보탬 필요가 있나 하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친 동북아시아의 200여 년간은 元·明交替로 분수령을 이루는 육상국가의 변동에 발맞추어 해역세계 또한 격동과 부침을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동시기 제주도의 역사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 사례연구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동북아시아 해역세계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부감하려는 시도는 管見이기는 하나 그다지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정된 사실들에 의지하면서 元·明交替를 통하여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제주도'의 역사를 조망할 때 새롭게 혹은 다르게 보이는 측면들을 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해역세계 속의 제주도'에 관한 하나의 試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가 겨냥하는 바는,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확정하는 데에 있기보다, 오히려 줄곧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던 事象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마리로서 본 발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알려져 왔으면서 해상교역과 국가공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복'⁶⁾으로 대표되는 해산물이다.⁷⁾

5) 이런 측면에서 허남린의 연구는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거시적인 지표를 통해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朝鮮 공권력의 제주도 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朝鮮史라는 일국사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탐라문화』 31, 2007.

6) 제주도산 전복의 민속학적 고찰로는 今村軻의 연구가 선구적인 업적에 속한다. 今村軻, 「濟州の鮑」,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그 외 역사학에서는 주

‘전복’에 주목하는 본고의 의도는 단순히 이 물품의 기호적 측면을 밝히는 데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에서 ‘전복’은 생계의 수단이자 수취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한데 가진 물품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역품’으로서든 ‘진상품’으로서든 근세 동북아시아 해역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던 ‘전복의 길’은 제주도의 역사적 위치와 그 주민의 생활양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전복의 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는 필경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복의 길’의 변화를 야기하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크게 (1)제주도를 지배하던 조선왕조, (2)제주도를 포괄하는 동북아시아 해역질서를 주재하던 明朝가 상정된다. 이 중에서 조선왕조의 제주도 지배에 관해서는 이미 중후한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천착되어 온 주제이기에 제쳐두기로 한다.⁸⁾ 그 대신에 본고에서는 주로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전복의 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과 연동하여 추적하도록 하겠다.

로 고대 耽羅와 倭의 교류를 다룬 연구로 森公章,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1998; 梁聖宗, 「木簡の『耽羅鰻』についての一考察: 現存する最古の記録遺物を讀む」, 『耽羅研究會報』 11,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 7)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に」;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08.
- 8) 제주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海民이 전개한 해상활동의 실태에 관해서는 網野善彦과 高橋公明가 선구적으로 거론하였고 이후 한일 양국에서 후속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網野善彦, 「中世から見た古代の海民」, 『日本の古代8 海人の傳統』, 中央公論社, 1987;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海と列島文化4: 東シナ海と西海文化』, 小學館, 1992 등 참조.

II. 15세기 이전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와 제주도

朝鮮前期를 대표하는 유능한 재상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保閑齋 申叔舟(1417~1475)는 1469(睿宗元)년에 按撫使兼牧使로 제주도에 부임하게 된 金好仁⁹⁾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다.

제주는 옛 耽羅國이다. 남쪽으로 바다 한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어 海上으로 수백리를 가야 다다른다. 奇材와 海産物[海錯]이 나며 商船이 끊임없이 왕래한다. 海賊도 종횡으로 활동하니 文武의 큰 재능이 없다면 다스릴 수 없는 땅이다. ……제주는 元末에 말을 방목하고 牧子를 두어 황제의 피난처로 삼으려 계획하기도 하였다. 몽골인과 漢人이 잡거[蒙漢雜處]하며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반항하곤 하였다. 우리 왕조에 이르러 열성조의 '煦撫之恩'을 입게 되니 民人들이 동화되어 복속하였다. 그렇지만 商人들이 이곳으로 몰려 主客이 북적대니 땅은 황폐하고 民人은 빈곤하여 사나운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릇 엄정하게만 대하면 빈민이 버티지 못하여, 관대하게만 대하면 사나운 습속을 다스릴 수 없으니, 관대함과 엄정함에 균형이 없으면 民人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하물며 제주는 서쪽으로는 中國의 明州를 두고, 동쪽으로 日本九州에 해당하며, 남쪽으로는 琉球諸島와 통하고 있어, 海賊이 출몰하고 푸른 바다로 막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구원하기에 때가 맞지 않다. 반드시 사람들 사이의 화합으로 지켜야 한다.¹⁰⁾

9) 金好仁의 濟州牧使 부임은 『耽羅志草本』 卷3, 「官案」條를 참조.

10) 申叔舟, 『保閑齋集』 卷15, 「送金同年好仁安撫濟州序」: “濟州, 卽耽羅古國也. 在南海中絕遠, 浮海數百里而至. 産奇材海錯, 商舶絡繹. 海賊縱橫, 非文武大才, 莫能鎮之. ……濟州自元季, 放馬置吏卒, 爲避亂之計. 蒙漢雜處, 恃險反覆. 至于我朝, 被列聖煦撫之恩, 民安於化, 同於內服. 然商販輻輳, 主客雜沓, 地瘠民貧, 遺風悍俗, 尙有存者. 一於猛, 貧民無以存, 一於寬, 悍俗無以懲. 不能以寬猛

본 사료는 15세기를 살았던 저자가 제주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 통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당시 朝鮮 朝廷에서 申叔舟가 차지하고 있던 정치적 위상으로 미루어 본다면, 명실공히 朝鮮王朝 최고 爲政者의 제주도 인식을 집약해 놓은 문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5세기는 元·明 교체의 대변동 속에서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가체제와 국제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였으며, 이는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 사료를 실마리로 삼아 15세기를 전후한 시기 동북아시아 속의 제주도가 어떠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지속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바다 한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다(海中絶遠)”거나 “푸른 바다로 막혀 서로 통하지 않는다(滄波阻隔)”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대의 전형적인 제주도관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金好仁보다 앞선 1404(太宗 4)년에 濟州牧使로 부임했던 李元恒¹¹⁾에게 陽村 權近이 주었다는 送別詩에도 “耽羅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니 …… 바람을 타고 가는 바다 길은 끝없이 아득한데다가, 수 백리 건너는 데도 위험한 파도를 예측할 수 없다”¹²⁾라는 식의 서술이 보인다. 이처럼 제주도를 국가의 통제가 도달하는 邊境으로 보는 관점은 朝鮮王朝의 爲政者 사이에서 공유된 인식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제주도관을 공유하면서도 申叔舟의 견해가 갖는 차별성은 동북아시아 해역 속에서 제주도의 위치를 서술하는 지점이다.

相濟, 民何所賴. 況州西值中國之明州, 東當日本之九州, 南通琉球諸島, 海賊出沒, 滄波阻隔, 救援不時. 是必人和可保.”

11) 李元恒의 濟州牧使 부임은 『耽羅志草本』 卷3, 「官案」條를 참조.

12) 『陽村先生文集』 卷20, 「送濟州牧使李君元恒詩序」: “耽羅在海中. ……然以其飄風駕海, 渺漫無際, 涉數百里, 驚濤不測之險.”

“서쪽으로는 中國의 明州를 두고, 동쪽으로 日本의 九州에 해당하며, 남쪽으로는 琉球諸島와 통”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申叔舟는 제주도를 국가의 邊境으로 보는 동시에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요충지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지리적 특성은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奇材와 海産物[海錯]이 나며 商船이 끊임없이 왕래한다”는 구절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海産物’이며 이를 商船을 통해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역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었던 것이다.

문헌사료에서 제주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3세기말에 편찬된 『三國志』 魏書東夷傳인데, 이에 따르면 제주도민을 가리키는 ‘州胡’가 “배에 올라 왕래하며 中·韓에서 장사한다”고 서술되어 있다.¹³⁾ 이를 뒷받침하듯이 제주도 山地港에서는 서기전 2세기경에 주조된 五鑄錢을 비롯한 중국 동전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근래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서부 일대의 연안·도서에서 발견된 중국 동전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¹⁴⁾

뿐만 아니라 1487(成宗 18)년 推刷敬差官으로서 제주에 부임했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급히 귀향하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 明朝의 台州府 臨海縣에 漂着한 崔溥의 표류기록인 『漂海錄』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일화가 삽입되어 있다.

13)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乘船往來, 市買韓中.”

14) 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 海村の視点から」,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2009 참조.

15) 『漂海錄』 成宗 19(1488)년 3월 23일조: 昔嘉祐中, 高麗臣屬毛羅島人, 檣摧桅折, 風漂抵岸, 至蘇州崐山縣. 知縣事韓正彦, 犒以酒食, 見其舊桅植舟木上不可動, 使工人爲治桅, 造轉軸, 教其起倒之法, 其人喜, 捧手而輒. 毛羅, 卽今我濟州也.

옛날 宋 仁宗 嘉祐(1056-1063) 연간에 高麗에 臣屬된 毛羅島 사람이 돛대가 부러지고 표류하여 해안에 닿아 蘇州 崑山縣에 이르렀습니다. 知縣 韓正彦이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고, 오래된 돛대를 舟木 위에 설치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工人을 시켜 돛대를 수리하고 회전축을 만들게 하여 그것을 높히고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니 그 사람들이 손뼉 치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毛羅는 지금 우리나라의 濟州입니다.¹⁵⁾

즉 11세기 중반에 어떤 耽羅人이 표류하여 中國 동남연해에 조난한 이야기가 현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다가 15세기 후반에 거의 동일한 사연으로 漂着한 崔溥 일행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당시 明朝에서는 倭寇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海防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崔溥 일행 역시 漂着 당시에는 倭寇로 오인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¹⁶⁾ 이처럼 崔溥 일행에 대한 삼엄한 경계와는 대조적으로 11세기 중반 耽羅人의 漂着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울러 음식물의 제공이나 선박의 수리와 같이 漂流人에 지방관의 능숙한 처리를 보더라도 당시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이와 같은 조난 사건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상화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대부터 황해와 동중국해 연안을 하나로 묶어주는 광역적 해상교역 네트워크의 결절점 중 하나로 제주도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海東諸國記』(1471)의 찬자로서도 알려져 있는 申叔舟의 제주도 인식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응축되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商人들이 이곳으로 몰려 主客이 북적대니 땅은 황폐하고 民人은 빈곤하여 사나운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申叔舟의 서술은 農本主義에

16) 서인범, 「明代 浙江지역의 海防體制와 조선 官人 崔溥의 漂着」, 『한국학연구』 28, 2012 참조.

입각한 유교 엘리트의 관점에서 제주도가 취약한 토지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농업을 통한 식량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¹⁷⁾ 실제 朝鮮時代에 편찬된 각종 지리서에서도 “땅이 척박하여 民人이 빈곤하다”는 문구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투구처럼 쓰이고 있다.¹⁸⁾ 그런 까닭에 제주도의 주된 경제적 토대는 바다와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해산물의 채취와 교역에 의해 지탱되었다. 海産物의 채취와 교역이야말로 제주도 경제구조의 基層 요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申叔舟가 제주도 역사의 분기점으로서 몽골제국~大元¹⁹⁾의 지배를 거론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즉 “제주는 元末에 말을 방목하고 牧子를 두어 황제의 피난처로 삼으려 계획하기도 하였다. 몽골인과 漢人이 잡거(蒙漢雜處)하며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반항하곤 하였다”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를 항목 별로 정리한다면, ①말 방목의 개시, ②大元 황제의 피난 계획, ③몽골인과 漢人의 잡거상태, ④牧戶의 亂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항목에는 이미 여러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주도의 大元 복속기에 개시된 말 牧場의 경영이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²⁰⁾

17) 허남린은 이러한 측면을 ‘경제의 페리퍼리’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18~22쪽.

18) “耽羅地瘠民貧”이란 표현은 이미 『高麗史』 卷8, 世家, 文宗12년8월乙巳條에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産, 乘木道, 經紀謀生.”에서부터 등장한다. 朝鮮 건국 이후 제주도민의 생계 문제에 관련해서는 [표 1]에서 관계사료를 정리하였다.

19) 칭기스 칸이 건국한 몽골제국의 정식국명은 ‘Yeke Mongyol Ulus(=大蒙古國)’ 이었고 이에 대한 한자식 명칭이 ‘大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2006 참조. 본고에서는 정식국명을 강조하여 ‘大元’을 사용하되 문맥에 따라 元도 병용하겠다.

20) ①·②·③·④ 각 항목에 관해서는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 pp.174-177(原載: 『國際基督教大學アジ

먼저 시대의 추이를 살펴보자. 13~14세기 몽골제국~大元の 흥기와 유라시아 대륙의 대통합은 동북아시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결정적 계기였다. 高麗 역시 이러한 시대적 추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몇 차례의 저항을 거쳐 최종적으로 大元에 굴복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高麗에서 反元 세력을 대표하던 三別抄의 마지막 저항거점이 되었는데, 大元은 高麗와 연합하여 정벌군을 파병하였다. 이후 三別抄를 진압하자 1273(至元10·元宗14)년 제주도에 耽羅國招討司를 두어 직할령으로 개편하였고,²¹⁾ 이후 제주도에 대규모 직할 牧場을 설치하여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였다.²²⁾ 이에 따라 몽골인과 漢人을 비롯한 많은 수의 외지인이 제주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²³⁾ 이로써 제주도가 갖고 있던 동북아시아 해상교역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大元이 통합한 유라시아 네트워크 속에 맞물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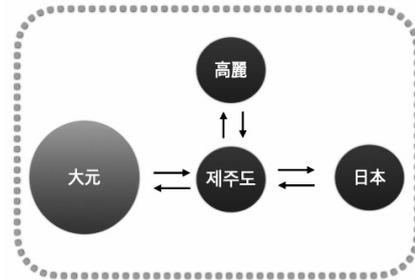
『ア文化研究論叢』 1, 1958)가 개관하고 있으므로 참조.

- 21) 耽羅國招討司는 이후 1275(至元12·忠烈王元)년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되었다가 1284(至元21·忠烈王10)년에 다시 軍民按撫司로 개편하였다. 大元은 1301(大德5·忠烈王10)년에 耽羅萬戶府를 설치하여 高麗의 征東行省에 귀속시킨다.
- 22) 『高麗史』 卷28, 世家, 忠烈王2년 8월 丁亥條: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匹來牧.”
- 23) 이러한 제주도의 “蒙漢雜處”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이 ‘蘭秀山の亂’이다. 藤田明良에 따르면, 1368년 明朝가 浙江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해상교통을 장악하려 하자 舟山列島를 근거지로 하던 해상세력, 이른바 ‘蘭秀山賊’이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국 패배한 이들은 ‘耽羅’로 도망하였고 그 중에는 耽羅 출신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 1997). 이처럼 15세기 이전까지 동북아시아 해역에서는 바다를 넘는 이동과 교류가 빈번한 일이었으며, 제주도는 그러한 추세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4) 이와 관련하여 漢地와 제주도의 교통 경로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육로+해로만이 아니라 江南에서 직접 해로를 통해 직행하는 경로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일찍이 岡田英弘는 1365년에 제주도로 건너갔다가 귀국 후에 『耽羅志略』을 저술한 浙江 출신 李至剛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교통 루트를 선구적으로 밝힌

大元の 지배는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에도 커다란 변동을 야기했다. 종래 제주도민의 생계수단이 주로 해산물 채취와 그 교역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大元の 지배를 계기로 牧場 경영을 통한 말 사육이 또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1374(恭愍王23)년 明의 사신이 高麗에 와 “내가 생각건대, 高麗는 이미 元朝 때부터 말 20,000~30,000필을 耽羅에 두고 사육했으니, 지금은 필시 많이 번식해 있을 것이다”²⁵⁾라 한 발언에서 미루어 짐작한다면 제주도에는 최소 20,000~30,000필 규모의 말 牧場이 운영되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아마도 제주도로 건너온 몽골인이나 漢人 대다수도 이러한 말 목장 경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15세기 이전 제주도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전복으로 대표되는 해산물 채취·교역, 그리고 목장 경영을 통한 말 사육과 교역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제주도

[그림 1] 大元 시기 동북아시아 해역 속 제주도



의 열악한 토지생산성과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어 사회경제의 기층을 이루게 되었던 반면에, 후자는 大元の 지배라는 인위적이고 역사적인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제주도 사회경제에서 또 하나의 층위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전복’과 ‘말’이라는 특산품

바 있다. 同, 「元の惠宗と濟州島」, pp.165~171.

25) 『高麗史』 卷44, 世家, 恭愍王23년 4월 戊申條: “我想高麗國, 已先元朝, 曾有馬二三萬, 留在耽羅牧養, 孳生儘多.”

의 유통 경로는 크게 보아 두 갈래의 길이 상정된다. 하나는 전통적인 세계 수단으로서 '交易品の 길'이다. 이 길은 동북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제주도의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각국 海商의 활동한 교역활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의 길은 '進上品의 길'이다. '耽羅鰲'이나 '耽羅方脯'라 불리는 제주도산 전복은 古代부터 日本과의 대외교섭에서 중요한 물품으로서 이 길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百濟·新羅·高麗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大元의 말 목장 설치의 종래 전복이 중심적이었던 '進上品의 길'에 '말'이라는 새로운 물품이 추가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5세기 이전 제주도는 이와 같이 '交易品'과 '進上品'이라는 두 갈래의 길 위를 교차하는 '물품'들에 의해 사회경제의 기본구조가 구성되어 있었다. '물품' 속에는 古代에서부터 특산품으로 유명했던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이 기층에 자리하고, 여기에 大元의 유산으로서 '말'이 새로운 지층으로 덧붙여져 있었다. 그렇다면 元·明 교체라는 유라시아 규모의 지각변동은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나아가 그 속에서 제주도의 사회경제 구조는 다시 어떻게 변용하였을까.

Ⅲ. 明初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동과 제주도 사회경제

14세기 중엽 이후 大元의 패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여 세계의 종말과 미륵부처에 의한 구제를 설파하는 白蓮教 일파가 봉기하며 전국 각지에서 반란의 불길이 번져나간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떠돌이 승려 출신 朱元璋이 군벌세력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어 1368년 南京에서 皇帝의 자리에 올라 大明(=明朝, 1368~1644)을 건국하

니, 곧 太祖 洪武帝(재위: 1368~98)다. 같은 해 明軍이 北伐을 개시하여 長江을 넘어 華北으로 진군하자 大元 정권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수도인 大都를 뒤로 하고 몽골고원으로 후퇴한다. 이로써 漢地를 장악한 패권국이 元에서 明으로 바뀌는 이른바 元·明交替가 이루어진다.²⁶⁾

明朝 정권은 漢地를 장악한 즉시 高麗·日本·琉球 등에 사신을 파견하여 入貢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몽골고원에 건재한 大元 세력에 대항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승인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북방의 위협요소와 함께 동남 해상에서는 元末부터 倭寇(前期倭寇)가 횡행하고 있었다. 明朝는 倭寇에 대한 海防을 최우선시하여 민간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대외관계를 국가간의 朝貢·冊封 관계에 한정시키는 대단히 엄격한 대외관계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하여 明朝 정권의 주도 하에 海禁과 朝貢이 결합된 '海禁-朝貢 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해역질서 또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²⁷⁾

海禁-朝貢 체제의 성립이 동북아시아 해역세계에 미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역 형태의 변화이다. 주지하듯이 大元 시기까지는 국가 주도의 公貿易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대외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海禁-朝貢 체제는 민간무역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대외무역을 明朝 정권 주도의 朝貢·冊封 관계에 얽어매는 체제였다. 외부세력이

-
- 26) 다만 元明交替 자체가 몽골제국~大元の 멸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몽골세력은 자신들의 연고지인 몽골고원으로 후퇴한 뒤에도 北元이라 불리며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였다. 1635년 北元의 적통에 해당하는 차하르Čaqaq가 大清으로 귀순함에 따라 몽골제국~大元 대간의 지위는 大清의 군주 홍타이지Hong Taiji(皇太極)에게 계승된다. 이에 대해서는 임경준, 「清初 三藩의 亂과 盛京 지역 주변정세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61, 2020, 145-148쪽 참조.
- 27) 海禁-朝貢 체제의 형성과 전개에 관해서는 檀上寬,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岩井茂樹, 『朝貢·海禁·互市: 近世東アジアの貿易と秩序』, 名古屋大學出版會, 2020 등의 연구성과를 참조.

명측에 무역을 요청한다 해도 明朝를 宗主國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이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은 철저하게 국가관계로 한정되었고 기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민간교역은 密貿易으로 규정되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唐代 이래 오랫동안 朝貢과 冊封의 틀에서 벗어나 있던 日本이 다시 여기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²⁸⁾

한편 元·明 교체의 혼란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1392년에는 高麗를 대신하여 朝鮮王朝가 건국된다. 高麗에서 朝鮮으로의 왕조교체에 의해 제주도의 영유권 역시 그대로 高麗에서 朝鮮으로 이전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가의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 제주도의 내부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인가. 『朝鮮王朝實錄』에서 朝鮮이 건국된 15세기를 중심으로 제주도민의 생계 문제에 관한 기사를 추출하여 살펴보고자 하자.

먼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관하여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조밀하여,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지 않고, 水陸의 소산으로써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으므로, 밭의 조세를 받을 것이 없다”²⁹⁾거나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

28) 日本의 對明 통교는 1402년 室町幕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足利義滿이 明의 永樂帝에게 조공사절을 파견하고 ‘日本國王’에 冊封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는 478년 남북조 시대 劉宋의 황제 順帝가 倭王 武를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으로 책봉했다고 하는 일설에 따른다면, 실로 900년만의 國交 재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明·日 무역에 관한 배경 설명과 연구사 정리는 모모키 시로 외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제7장에 수록된 이토 고지, 「일명日명의 외교와 무역」을 참조. 이와 함께 최근 출간된 村井章介 編, 『日明關係史研究入門』, 勉誠出版, 2017 역시 개설적인 설명과 관련 연구를 망라하고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29) 『世宗實錄』 卷4, 世宗 원(1419)년 7월 丙辰條: 濟州土瘠民稠, 不事農桑, 以水陸所產, 商販爲生, 故不可以收田租.

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³⁰⁾라는 서술이 주목된다. 농업생산력에 대비하여 인구가 조밀한 탓에 농업에만 의지해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어업과 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제주의 생계 환경은 “제주는……오늘날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海菜·橡實 등의 물건으로 겨우 살아가게 됩니다”³¹⁾라는 文句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설령 농업에 의한 수확물이 최대치에 달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던 것이 당시 제주도의 상황이었다. 15세기 후반에도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이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므로, 완전히 장사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데”³²⁾라고 할 정도였다. 제주도의 환경적 조건은 농업보다는 어업과 상업 우위의 생활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15세기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어업과 상업 이외에도 “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합니다”³³⁾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축산을 들 수 있다. 축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대상은 ‘말(馬)’이었다. 이는 “제주 사람들은 말을 팔아서 입고 먹는 자분을 삼는”³⁴⁾다던가 “제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사람들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³⁵⁾한다는 당시 조정

30) 『世宗實錄』卷5, 世宗 원(1419)년 9월 癸丑條: 然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 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31) 『世宗實錄』卷64, 世宗 16(1634)년 6월 甲子條: 濟州……今人多地窄, 雖曰豐年, 猶以海菜橡實等物, 得以資生.

32) 『成宗實錄』卷247, 成宗21(1490)년 11월 癸未條: 本土瘠, 民不能粒食, 生利專賴興販.

33) 『世宗實錄』卷 36, 世宗 9(1427)년 6월 10일 丁卯條: 濟州土地窄, 而畜產繁.

34) 『世宗實錄』卷28, 世宗 7(1425)년 4월 辛丑條: 濟州之人, 市馬以爲衣食之資.

35) 『世宗實錄』卷29, 世宗 7(1425)년 9월 庚子條: 濟州人多地窄單寒, 人民皆以買馬資生.

관료들의 발언을 통하여 제주도인에게 말 사육과 거래가 갖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소(牛)'도 축산의 대상이었다. “제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艱苦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牛皮와 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³⁶⁾라는 데에 확인할 수 있듯이 소와 말을 도살하여 그 가죽을 무역하는 것이 중요한 생계수단 중 하나였다. 이처럼 소와 말의 사육이 활발하여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牧場이 절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기 때문에 곡식에 손해가 많”³⁷⁾다고 할 정도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高麗에서 朝鮮으로 영유권이 이전되었다 해도 15세기 제주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 구조는 여전히 海産物 채취·교역과 말 牧場 경영을 통해 지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사회경제는 “개간하여 경작할 만한 땅은 겨우 10분의 1이며 五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논이 드물어서 세 고을 수령의 供饋하는 쌀은 단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바꾸어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오직 말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기장·山菜·海菜로 보충합니다”³⁸⁾라는 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15세기의 제주도민은 어업과 상업 그리고 축산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토지 생산성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여러 사료에서 변함없이 확인되는 것이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변화한 측면

36) 『世宗實錄』 卷64, 世宗 16(1434)년 6월 己未條: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37) 『世宗實錄』 卷39, 世宗 10(1428)년 1월 己丑條: 島內地窄人多, 牧場過半, 因牛馬踐蹂, 禾稼多損.

38) 『成宗實錄』 卷281, 成宗24(1493)년 8월 丁卯條: 開墾可耕之地, 僅十分之一, 五穀不成, 水田希罕, 三邑守令供饋之米, 只將魚藿, 陸地質遷, 方能僅足. 民間則專以鬻馬爲生, 麥, 稷, 山海菜補之.

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元·明 교체와 高麗에서 朝鮮으로의 영유권 이전이 발생한 15세기초에 제주도도 직면한 변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朝鮮의 제주도 지배가 진행됨에 따라 朝鮮의 수취체제인 貢納制가 정착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거론되는 ‘交易’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 변화이다. 양자는 각각 ‘進上品’과 ‘交易品’에 대응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순서에 따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V. 제주도에서의 貢納制 착근과 ‘전복’의 길

주지하듯이 朝鮮의 국가재정은 田稅·良役·貢納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貢納은 다시 貢物(=現物稅)과 進上(=禮物)으로 구별되었다.³⁹⁾ 제주도의 경우 자연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중앙에 상납하는 조세는 사실상 進上, 즉 禮物에 한정되었다.⁴⁰⁾ 朝鮮의 수취제도가 제주도에 뿌리내림에 따라 종래 ‘交易品’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사회경제 구조에 ‘進上品’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申叔舟가 ‘奇材’와 ‘海錯’의 산지라 지적했던 대로 제주도에는 한반도 본토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진귀하고 독특한 물품이 풍부하였다. 말 뿐만 아니라 海産物·감귤·약재와 같은 특이한 토산물이 여기에 해당할

39)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40) 제주도 수취체제의 특성에 관해서는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の 실태」, 『탐라문화』 16, 1996; 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 2003;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1998;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 24, 2004 등 참조.

텐데,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의 島嶼로서의 입지조건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물품은 역시 海産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海産物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해역·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표 1] 조선시대 지리서에 보이는 제주도 특산 해산물

서명	『世宗實錄地理志』 (1454)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耽羅志』 (1653)	『南宦博物』 (1703)
물품명	玳瑁·全鮑·引鮑·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布	海獺·瑣珠·玳瑁·貝·鸚鵡螺·無灰木·藿·牛毛·蟹·螺·鰓·黃蛤·海衣·烏賊魚·銀口魚·玉頭魚·鯊·刀魚·古刀魚·行魚·文魚	海獺·瑣珠·玳瑁·貝·鸚鵡螺·鰓·藿·牛毛·蟹·黃蛤·玉頭魚·銀口魚·鮫魚·刀魚·古刀魚·行魚·文魚·望魚·生魚·藿·牛毛·無灰木·	鮫魚·鰐魚·鯨魚·文魚·望魚·刀魚·古刀魚·行魚·生魚·玉頭魚·飛魚·銀口魚·秀魚·烏賊魚·魴魚·鰓·海蔘·紅蛤·瑣珠·玳瑁·貝子·鸚鵡螺·牡蠣·海獺·藿·靑角·黃角·牛毛

[표 1]은 朝鮮時代의 각종 지리서에 등장하는 제주 토산물 중에서 해산물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특산으로 평판이 높았던 것은 해조류와 조개류였다. 특히 제주도산 미역[藿]은 오래 전부터 교역품으로 이용되었는데, 高麗 말기에는 耽羅에서 나는 '海菜'의 명성이 멀리 중국인에게도 퍼져있었다고 한다.⁴¹⁾ 이러한 경향은 “미역은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土民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⁴²⁾라 언급하는 것처럼 15세기 초기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1) 明의 성립 직후에 漢地의 江南 일대에서 '蘭秀山의 亂'이란 무장 봉기를 舟山群島의 해상세력이 일으키는데, 이들은 明의 토벌군에 패배한 뒤 제주도로 도망한다. 그런데 이들 세력의 일부는 제주도에서 '海菜'를 매입하여 타지역에 行商으로 잠입하려 했다. 이에 관해서는 藤田明良의 전계논문을 참조.

이어서 조개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眞珠다. 1079년에 耽羅勾當使가 高麗國王에게 眞珠를 헌상했는데, 그 빛나는 것이 마치 별과 같아서 ‘夜明珠’라 불렀다는 기록이 전한다.⁴³⁾ 또 1276년에는 大元에서 林惟幹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眞珠를 채취케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반 民에게서 眞珠 100여개를 탈취해 갔다고 한다.⁴⁴⁾ 이로부터 제주도산 眞珠의 가치는 高麗 뿐만 아니라 漢地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산 海産物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물품은 다름 아닌 ‘전복’이었다. 전복은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의 해상교역에서 주된 상품이었던 동시에 대외교섭에 수반되는 물품으로서도 중요시되었다.⁴⁵⁾ 이러한 경향은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표 1]의 각 지리서에도 ‘鰓’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豆禿也只(頭禿也只)·頭無岳·鮑作人(鮑作干·鮑作輩·鮑作漢) 등으로 불리는, 전복 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以船爲家’라는 생활형태로 형용되는 이들 집단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충청도를 비롯한 한반도 연안을 무대로 전복을 채취하였다.⁴⁶⁾

42) 『世宗實錄』 卷117, 世宗 29(1447)년 9월 壬子條: 夫藿者, ……處處皆有之. 濟州所産尤繁.

43) 『高麗史』 卷9, 文宗 33년 11월 壬申條: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44) 『高麗史』 卷28, 忠烈王2年 윤3월 丁酉條: 元遣林惟幹及回回阿室迷里, 來採珠于耽羅. ; 『高麗史』 卷28, 忠烈王2年 6월 壬申條: 林惟幹採珠耽羅, 不得, 乃取民所藏百餘枚, 還元.

45) 예를 들어 日本의 고대사료 『延喜式』이나 헤이조쿄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8세기 이후 肥後國(현재의 熊本縣 일대)과 분고국豊後國(현재의 大分縣)이 進貢品으로 ‘耽羅鰓’을 바쳤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耽羅鰓’이 전복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복의 産地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연구사상 논쟁이 있으나, 耽羅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점 자체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清武雄二, 『アワビと古代國家: 『延喜式』にみる食材の生産と管理』, 平凡社, 2021 참조.

46) 高橋公明의 전계논문들을 참조.

이처럼 鮑作人과 같은 집단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서 전복을 채집한 까닭은 당시 朝鮮에서 전복이 중요한 공납품이었기 때문이었다. 金尙憲의 『南槎錄』에는 “浦作輩는 흠아비로 살다 늙어 죽는 자가 많다. 그 이유를 물으니 ‘本州가 공물로 바쳐야 할 鰓魚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公務를 빙자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됩니다. 浦作輩는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流亡하거나 溺死하여 열에 두셋만이 남게 되었습니다.”⁴⁷⁾라고 하여 당시의 과중한 부담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1489(成宗 20)년 전라도와 충청도를 순시하던 敬差官 李誼는 鮑作人과 당시 연안일대에서 횡행하던 水賊이 서로 표리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⁸⁾ 전복 進上의 과중한 부담이 鮑作人의 流民化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朝鮮은 제주도에 대한 田稅 수취를 포기하는 대신 예로부터 특산으로 알려져 왔던 물품을 貢納制 속에 편입시켜 進上品으로 수취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하겠다. 이 중에서 ‘전복’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계를 도모하는 수단 중 하나였지만,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왕조국가의 수취체계 속에 편입되어 제주도 고유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틀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물품으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복이 이동하는 ‘길’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 시기에는 어떠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복의 길’에는 ‘交易品の 길’이 역사적 기층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위로 ‘進上品의 길’이 또 하나의 층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朝鮮의 제주도 지배가 관철되어 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進上品의 길’이 대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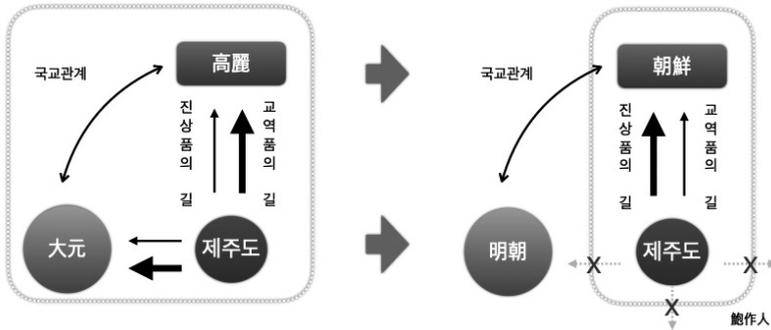
交易品の 길 또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재편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이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의 교역으로 제주도민의 생계가 유지되고

47) 『南槎錄』 9월 22일조(p.100).

48) 『成宗實錄』 卷226, 成宗 20년 3월 癸酉條: “如此之人, 不知其幾千人也, 而一朝定爲常賦之役,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也.”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明朝 정권의 성립 이후 海禁-朝貢 체제가 동북아시아 해역질서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시아 해상 교역은 철저히 국가 간 公貿易에 한정되고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私貿易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교역 역시 공식적으로는 朝鮮이란 국가 내의 역내 교역에 국한되면서 이전과 같은 활발한 대외교역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元明交替와 제주도



許筠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屠門大嚼』(1611년)은 한반도 각지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식재료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⁴⁹⁾ 여기에 ‘大鰻魚’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주에서 나는 것이 가장 크다. 맛은 작은 것 보다는 못하지만 華人이 매우 귀히 여긴다⁵⁰⁾”라고 하여 당시 제주도산 전복이 중국인에게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海禁-朝貢 체제하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제주도산 전복이

49) 許筠은 『屠門大嚼』의 서문에서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다가 강릉에서 기거하였고 이후 벼슬살이를 하면서 전국을 주유했는데, 이때 전국에서 나는 기이한 해산물과 별미를 골고루 맛보았다고 회고하고 있다(『惺所覆瓿藁』卷25, 「屠門大嚼引」).

50) 『惺所覆瓿藁』卷26, 「屠門大嚼」: “大鰻魚, 產濟州者最大. 味不及小者, 而華人極貴之.”

중국에 알려진 계기는 제주도민의 자체적인 전복 교역이 아니라 明朝와 朝鮮 양국의 朝貢·冊封 관계를 통해서였으리라 추정된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전례에 濟州 全鰈을 구매하여 대접하는 것이 수천 貼에 이르렀는데, 사람을 보내 반값만 지불하고서 사 오곤 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絶島의 백성들이 원망과 고통이 필시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구매하여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텐데 하물며 중국 사신이 반드시 全鰈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을진대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설령 중국 사신이 全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대신 주면 될 것이니, 더 구매하는 일은 중지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이미 보낸 절반의 물품 값 역시 환수하지 말도록 하여 전일에 억지로 팔게 했던 일을 보상해 주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광해가 따랐는데 그 뒤에 과연 전복의 용도에 부족한 점이 없었다.⁵¹⁾

이 사료는 月沙 李廷龜(1564~1635)의 行狀에 실려있는 일화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반드시 전복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중국 사신측에서 전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중국인이 제주도산 전복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상 明朝와 朝鮮 양국 간의 공식적인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산 전복이 朝鮮으로의 進上을 경유하여 외국과 접하게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이 야말로 海禁-朝貢 체제하 '전복의 길'이 맞이한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종래 '交易品の 길'과 '進上品의 길'이란 두 갈래의 길에 의해 시행되던 '전복의 길'은 이제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새로운 길로 재편된 것이다.

51) 趙翼, 『浦渚集』卷34, 「議政府左議政諡文忠李公行狀」: 接待故事, 質濟州全鰈至數千貼, 差人給半價以質. 公啓, 絶島之民, 怨苦必多. 前質餘儲, 亦足支用, 況天使不必求鰈魚. 設求之, 亦可代給他物, 請寢加質. 且所送半價, 亦勿還收, 以償前日抑買. 光海從之. 其後鰈魚用不乏.

V. 맺음말

이제까지 15세기의 元·明 교체를 기점으로 하여 제주도산 ‘전복의 길’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범박한 試案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5세기 이전 제주도의 사회경제는 海産物의 채취와 교역이 기층에 자리 하면서 大元의 지배 이후 말 목장 경영이 활발해짐에 따라 말의 進上和 교역이 그 위에 표층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다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더하여 열악한 토지 생산성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인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15세기 이전 제주도는 ‘交易品’과 ‘進上品’이라는 두 갈래의 길 위를 교차하는 ‘물품’들에 의해 사회경제의 기본구조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 기능하였다.

(2) 동북아시아 해역 속에서 제주도의 위치가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는 元·明 교체에 의한 朝貢-海禁 체제의 구축이다. 종래 국가 간의 公貿易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私貿易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동북아시아 해역은 새롭게 성립된 明朝 정권의 강고한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일체의 대외 교역이 국가 간의 公貿易으로 일원화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영유권을 차지한 朝鮮王朝은 이 지역에 貢納制에 기반을 둔 수취체제를 시행하면서 제주도 지배를 관철해 나간다. 그 결과 이제까지 제주도산 전복이 이동하던 주요한 ‘길’이었던 ‘交易品の 길’과 ‘進上品의 길’ 중에서 전자가 역내 교역으로 축소되며 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동북아시아 해상교역의 결절점으로서 제주도가 갖고 있던 지위 상실을 ‘전복의 길’의 변화를 통해 간취할 수 있다.

元·明 교체에 의한 동북아시아 해역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도와

대조적인 사례는 琉球王國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海禁 정책으로 인하여 명으로의 직접적인 도항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15세기에는 아시아 해역에서는 중국 물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중계무역거점이 번성하였다. 15세기초에 통일된 류큐왕국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국가로서 크게 번영하였다. 이를 가능케 한 전제조건은 朝貢-海禁 체제하에서 독자적인 왕권을 보유하면서 明朝를 종주국으로 인정하는 冊封國이 되었다는 데 있었다.⁵²⁾ 1609년 이후 日本의 지배하에 들어가서도 琉球가 일정 수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淸·日 양국이 통교관계를 맺지 않은 하에서 日本의 對淸 창구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었던 점이 주효하였다.⁵³⁾

지난 20여 년간 海域史 연구의 진전을 통하여 제주도뿐만 아니라 琉球王國·舟山群島·對馬島와 같은 동북아시아 해역 속 島嶼의 역사적 전개를 규명한 다양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元·明 교체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변동 속에서 각 島嶼가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사례 분석은 흥미로운 비교 연구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각 島嶼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인 '물품'이 이동한 '길'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본고는 제주도산 '전복의 길'을 소재로 삼아 이를 위한 초보적인 시도를 해본 데 지나지 않는다.

(2021.03.28. 투고 / 2021.04.11. 심사완료 / 2021.04.19. 게재확정)

52) 岡本弘道, 『琉球王國海上交渉史研究』, 榕樹書林, 2010.

53) 渡邊美季, 『近世琉球と中日關係』, 吉川弘文館, 2012.

[Abstract]

**The marine world of early-modern Northeast Asia and
the 'abalone' road**
: focusing on Jeju Island around the 15 century

Lim, GyungJu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socioeconomy of Jeju Island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the maritime order of Northeast Asia since the 15th centu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migration path of marine products such as abalone. Before the 15 century, the trade of marine products was the foundation of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Jeju Island. However, after the Mongol Empire established its rule over Jeju Island, tributes became more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Jeju Island surrounded by the sea,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poor land productivity also affected the background. In other words, before the 15 century, the basic socioeconomic structure of Jeju Island was established through the movement of trade goods and tributes.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maritime exclusion-tribute for the court by the Ming Dynasty can be a clue to the changing position of Jeju Island in Northeast Asian sea areas. Traditionally, not only public trade but also private trade was freely carried out in the Northeast Asian sea areas. However, as the Ming Dynasty changed its policy to severely restrict private trade, the foreign trade of Northeast Asia

changed drastically. However, by the Ming Dynasty's policy of severely restricting private trade, foreign trade in Northeast Asia would be unified into public trade. Under such circumstances, Joseon Dynasty, which took control of Jeju Island, established a tax collection system based on the tributary system. As a result, the nature of marine products such as abalone that have been collected from Jeju Island will be changed from trading goods to tributary goods. At the same time, the way these things moved was also changed from the way of trade goods to the way of tribute goods.

In other words, Jeju Island's position in the maritime world of Northeast Asia can be read from the change in the path where abalones move.

□ Keyword

Dynastic Changes from Yüan to Ming, Maritime Order of Northeast Asia, Abalones, Jeju Island, Joseon Dynasty

[참고문헌]

1. 단행본

『朝鮮王朝實錄』

『陽村先生文集』

『保閑齋集』

『耽羅志草本』

『高麗史』

『三國志』

『惺所覆瓿藁』

『浦渚集』

『南槎錄』

『南宦博物』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漂海錄』(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2. 한국어문헌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 2008.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2006.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記念史學論叢』, 1986.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1998.

김나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鮑作의 사회적 지위」, 『역사민속학』 29, 2009.

-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 2003.
- 모모키 시로 외 역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1997.
- 박찬식, 「耽羅巡歷圖 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2000.
- 서인범, 「明代 浙江지역의 海防體制와 조선 官人 崔溥의 漂着」, 『한국학 연구』 28, 2012.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탐라문화』 24, 2004.
- 劉序楓, 「표류, 표류기, 해난, 桃木至朗(역음)/최연식(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 임경준, 「淸初 三藩의 亂과 盛京 지역 주변정세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61, 2020.
- 허남린,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 : 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탐라문화』 31, 2007.

3. 일본어문헌

- 岡本弘道, 『琉球王國海上交渉史研究』, 榕樹書林, 2010.
- 網野善彦, 「中世から見た古代の海民」, 『日本の古代8 海人の傳統』, 中央公論社, 1987.
-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
-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に」,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
- 高橋公明,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海と列島文化4 : 東シナ海と西海文化』, 小學館, 1992.

- 今村鞆, 『濟州の鯨』,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1928.
- 檀上寛,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 渡邊美季, 『近世琉球と中日關係』, 吉川弘文館, 2012.
- 藤田明良, 『『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一四世紀の舟山群島と高麗・日本』, 『歴史學研究』 698, 1997.
-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 『靑丘學術論叢』 19, 2001.
- 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 海村の視点から』,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2009
- 長森美信, 『18世紀濟州地域の凶年と賑恤策』, 『朝鮮學報』 193, 2004.
- 森公章,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1998.
- 岩井茂樹, 『朝貢・海禁・互市: 近世東アジアの貿易と秩序』, 名古屋大學出版會, 2020
- 六反田豊, 『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 『濟州啓録』を中心に』, 『年報朝鮮學』 7, 1999.
- 梁聖宗, 『木簡の『耽羅鯨』についての一考察: 現存する最古の記録遺物を讀む』, 『耽羅研究會報』 11, 1994.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 村井章介 編, 『日明關係史研究入門』, 勉誠出版, 2017.
- 清武雄二, 『アワビと古代國家: 『延喜式』にみる食材の生産と管理』, 平凡社, 2021.